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3. 12. (목)
(사진 15시 이후)**조달청, 현장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철저 대비**

“산재전문공공병원” 현장 찾아 해빙기 안전점검 및 공사관계자 의견 청취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2일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완공시 울산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으로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환자의 전문 치료 및 재활에서 직업 복귀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외부 및 부대토목공사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굴착부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설치 상태, 건설장비 및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조치 여부 등 안전 대책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원종현 (042-724-7401)
	공사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섭 (042-724-7301)